

創刊 15週年을 축하하며...

月刊〈國防과 技術〉誌가 창간 15주년이 되는 甲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이며, 경제계의 원로이신 白永勳 박사님에게 時論과 방산 전망에 대한 高見을 들어봅니다. (本誌 嚴致賢)



세계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더불어 전면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독립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미·소 양극체제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가로 남아 미국에 의지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자립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쌀시장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물밀듯 밀려오는 전면 개방의 파고속에 휘말려 가고 있어, 어제의 우방국가가 오늘은 경제적인 적대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나라도 이 싸움을 말릴 수 없으며 오직 끝없는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뿐입니다.

국가 안보의식도 지난날에 비하면 판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언제라도 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중국, 북한,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은 치열한 군비경쟁속에서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등 세계적 강대국의 세력권속에 홀로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국토가 좁고 원자재가 부족해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라이지만, 물질적으로나 국민 의식구조면에서, 그리고 기술력과 자립경제의 역량면에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일류의 선진공업국으로 모습을 나타낼수 있으며, 또한 이길만이 국가를 생존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이나 방위산업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이념과 가치관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자주국방의식을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확고한 국민적 합의를 엮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특히 방위산업육성이라고 하는 국가적 명제를 어느 일개 부처나 몇개의 집단에서만 걱정하는 근본적인 시대적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확고한 발판을 굳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창간 15주년을 맞이 하는 月刊〈國防과 技術〉誌도 국가생존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기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재인식하고, 국방과 과학,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거듭 창간 15주년을 맞는 月刊〈國防과 技術〉의 발전을 축하하고, 내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4년 1월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白永勳